

“Welfare, Clean-Power 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투명성 주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투명성 확립 교육·지원사업

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홍보국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의 78.9%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국가신용평가의 한 바로미터가 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5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에서도 OECD 가입 30개국 중 23위, 5.0점에 그쳐 홍콩의 8.3점 등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통령 직속의 청렴위원회가 설치되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적 계획과 행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그 어떤 분야 보다 높은 책무성과 투명성을 요구 받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각종 부패와 비리사건으로 인해 일반사회는 물론 윤리적 우위성의 경쟁관계에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부당한 공격마저 받고 있다.

이러한 불미한 사건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복지분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게 되고 모금액 감소,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 추락 등을 초래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은 아직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시적 노력이 부족하고 종사자 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투명성과 관련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현실진단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종사자 전반의(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등) 인식개선과 그에 따른 대외역량 강화를 외부의 요구에 앞서, 선도적·자발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종사자 및 기관운영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와 조직 역량의 핵심적 요인 중 투명성(transparency)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이에 Martin·Kettner(1997)는 “향후 휴먼서비스(복지분야)는 크게 2가지 이슈에 봉착할 것이며 하나는 자원의 부족, 다른 하나는 신뢰의 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 시민단체가 윤리경영, 투명사회협약체결 및 이행계획 수립·실천 등 그동안 부족했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달리, 복지분야는 지난 10월 17일에서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을 뿐 아직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행동,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물 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복지분야 및 종사자 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2006년 취약복지시설의 행정회계 멘토링 사업 등 복지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경험과 전국단위 학계 및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 각 지역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별 투명성 교육(16개 지역/2개과정/20명)을 전국 16개 지방협회와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함께 체계적인 캠페인, 온라인 교육, 보고대회 등을 자발적·선도적으로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분야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종사자들의 역량과 자부심을 고

본사업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6년 테마기획 사업으로 제한, 당선된 것으로 실행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림1] 사업 목적 및 목표

3개년간 목적(Purpose)

- 1차년도 : 투명성 인식 및 교육 인큐베이팅
- 2차년도 : 투명성 교육모델 질적 향상 및 확산
- 3차년도 : 투명성 확립 및 지속가능 전략 수립·추진



1차년도 사업목적

투명성 인식 및 교육 인큐베이팅

목표 1

복지분야 투명성 지원·교육 사업기반구축



세부목표 1

- 1) 자문단 및 실무단 구성
- 업무협의 4회 실시
- 2) 캠페인 전개
- 포스터 및 브로셔
 각 2,000부 제작·보급
- 온라인 캠페인 4회 실시

목표 2

복지분야 투명성 교육과정 개발·보급



세부목표 2

- 1) CEO 및 고급관리자 과정 교육실시 (320명)
- 2) 실무자 및 교육지도자 과정 교육실시 (320명)
- 3)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상담실적 50명)
- 4) 시상·보고대회 개최 (200명)

양함은 물론 복지분야 전체의 힘을 키우는(empowerment)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을 얻을 수 있나?”

- 복지분야의 대국민 신뢰와 그를 통한 자원개발, 이미지 개선 등 사업역량 강화
- 부패의 복지분야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투명성의 중요성 인식 확산
- 복지분야 종사자의 구체적 투명성 역량(자기진단, 인식전환, 실천전략과 기술 등)
- 복지분야 투명성 교육과정모델 개발
- 지역단위 네트워크 활동조직 등



“누구를 주요대상으로 하나?”

- 교육과정 측면 - 시설운영 및 관리, 지역네트워크의 핵심인 CEO 및 고급관리자
- 현장에서 투명성을 실천할 실무자



“어떻게 전개하나?”

- 1-3년차별 단계적 사업추진 - 1년차 : 복지분야 투명성 인큐베이팅
 - 2년차 : 투명성 교육 확대(성과극대화)
 - 3년차 : 투명성 확립 및 지속전략 수립
-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효과성 극대화 - 캠페인 전개를 통한 인식환기
 - 실천 및 지속성 지향의 교육과정 구성 (기본과정→F/U과정→네트워크과정)



“누가 추진하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6개 지회를 중심으로,
- 국가청렴위원회와 청렴위 지원 23개 시민단체의 강사진과 자문위원,
- 16개 지역별 협력대학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 실무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

본 신청사업의 특징들을 기대효과, 대상집단, 사업전략, 구성단계 및 내용 등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투명성 제고위한 캠페인 실시 등 사업기반구축사업

1차년도에는 우선 사업기반구축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국 16개 지방협회 실무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 포스터 및 브로셔 제작·배부,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함께해요! Welfare, Clean-Power 21!’ 캠페인을 전개하여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CEO(최고경영자 및 고급관리자) 과정
-“Clean Leaders Club”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최고경영자(CEO)와 국장급의 고급관리자는 조직 운영에서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기관의 개방성, 투명성 수준 향상에도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이다.

또 조직의 투명성 확립은 역량강화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장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CEO와 고급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추진력에 의해 그 성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단위 네트워크 활동 또한 기관장급의 참여가 관건이 된다.

이에 사회복지분야의 CEO와 고급관리자 교육을 통해 시설 종사자 전체의 투명성 향상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사회복지분야 시설 및 기관 최고경영자 및 부국장급 이상 20명씩 16개 지역 총 320명을 대상으로 복지환경 변화와 투명 경영의 중요성 이해, 투명경영 전략과 실행 방법의 이해 및 수립, 투명경영 이행계획 발표 및 서약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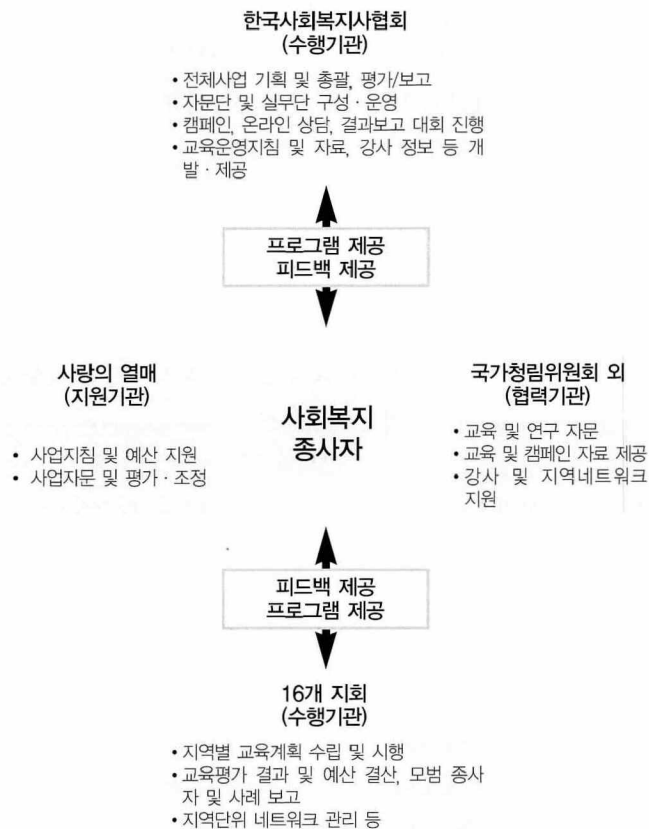
실무자(투명성교육 강사양성) 과정
-“Clean Power Club”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부패는 주로 기관장이나 관리자 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비용의 집행과정이거나 수요가 많은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정, 민원업무의 처리



사회복지분야는 종사자 및 기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어느 조직보다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0월 17일 사회복지분야 14개 단체장이 모여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그림2] 사업추진 흐름도



순서 배치, 후원금품의 배분 등 실무과정 곳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자리할 요인들은 많이 있다.

현재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등에서 시민단체 종사자를 중심으로 반부패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 등의 인성계발에 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대상학생들의 성품개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투명성 교육을 위한 지도자 과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청렴도를 반추하고, 각 시설의 이용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투명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분야 시설 및 기관 실무자 및 투명성 교육에 관심있는 자 20명씩 16개지역 총 320명을 대상으로 투명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설계, 투명성교육 전문가 특강 등의 내용으로 총 10회 40시간 내외에 걸쳐 진행된다.

온라인 투명성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을 통한 투명성 정보제공 및 자가진단, 캠페인, 국가청렴위 등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코너 등을 운영하한다. 또 '투명복지상' 시상식 및 사업결과 보고대회개최를 통해 국가청렴위,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 복지계 추천을 통해 종사자 및 단체 부문 투명성을 시상하게 된다. SW